

네부타(ねぶた)와 네푸타(ねふた)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히로사키네푸타(弘前ねふた祭り)의 전통과 변용-

이 덕 구 *

(e-mail: dklee0618@hj.ac.kr)

【Abstract】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Nebuta of Aomori and Neputa of Hirosaki, and explores the reason for Hirosaki's adherence to Neputa not to Nebuta which is a name more common and widely known.

Nebuta of Aomori is a tourism product that involves a newly established host organization to attempt changes of Nebuta in various aspects and attract a great number of tourists nationwide as a great event. In comparison, Neputa of Hirosaki adheres to the original form of the event due to the strong awareness that Hirosaki is the originator of the festival.

This differ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self-perception of each city: openness and pragmatism of Aomori as a port and commercial city; conservatism and pride of Hirosaki as a historic city of tradition and education. This was confirmed by the 'Star Wars Nebuta (スターウォーズねぶた)' happening in 2015.

key words : Nebuta(ねぶた), Neputa(ねふた), Aomori(青森), Hirosaki(弘前),
Star wars Nebuta(スターウォーズねぶた),

* 혜전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1. 서론

네부타(ねぶた)는 아오모리현(青森県)의 북부 쓰가루(津軽)와 시모키타(下北)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산재하는 부채·인형·동물 등의 모양을 한 대나무 구조물에 종이를 바른 등롱(灯籠)의 본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본체를 수레(屋台, 山車)에 싣고 거리를 행진하는 축제행사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¹⁾

쓰가루(津軽)지역의 네부타는 아오모리(青森), 히로사키(弘前), 구로이시(黒石) 등지에서 연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관광객을 의식한 대규모 행사로 변화되어 있지만, 시모키타(下北)지역의 네부타는 주로 농촌지역의 규모가 작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오모리현(青森県)일대에는 크고 작은 네부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네부타란 이러한 다수의 네부타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규모가 크고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아오모리시(青森市)의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를 통상의 네부타로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히로사키시(弘前市)의 ‘네푸타(ねぶた)’도 점점 지명도가 높아지고 비교적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네부타(ねぶた)와 네푸타(ねぶた)란 두 호칭을 두고 관광객들 사이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²⁾

네푸타(ねぶた)란 네부타(ねぶた)에 대한 지역의 방언³⁾으로 히로사키시(弘前市)에서 연행되는 네부타(弘前ねぶた祭り)를 말하는데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히로사키 사람들은 왜 방언인 네푸타를 고집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아오모리의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히로사키의 네푸타(弘前ねぶた祭り)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울러 히로사키시(弘前市)가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명칭인 네부타가 아닌 네푸타(ねぶた)를 고집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변용의 담론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겨 보고자 한다.

네부타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민속학적 측면에서 네부타의 기원을 논한 야나기다(柳田1990)의 「춘락행사 원류설」과 코마츠(小松 2000)의 「도시제례원류설」이 있고, 관광학적 측면으로는 아나미의 연구(阿南2000a.b.c 및 2003)가 있는데, 그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오모리네부타축제’가 칠월 칠석행사에서 동

- 1) 이하, 네부타는 네부타축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네부타 본체는 네부타본체로 표기한다.
- 2) 히로사키시(弘前市)는 1980년 네부타를 일본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 등록하면서 ‘히로사키네푸타(弘前ねぶた祭り)’로 정식 등록 하였고, 2015년 축제 관객은 150만으로 공식 집계 되었는데 아오모리의 절반정도이지만 도시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이다.
- 3) 현지 원주민들은(히로사키는 물론 아오모리 사람들도) ‘네푸타’ ‘네뿌타’ ‘네뻬타’ 등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현지조사는 2008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3년 5월에 걸쳐 두 도시를 관찰, 탐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복을 대표하는 현대적 이벤트로 변용되어지는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여,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축제가 관광화라는 명분에서 축제의 주최조직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네부타 본체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대형화와 화려함)는 축제의 관광화 명분을 더욱 명료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이 밖에 경영학적 측면에서 기업이 네부타축제에 참가하는 이유를 연구한 미쓰이(三井2006)의 연구 등이 있지만, 지역적 특성(도시성격)과의 관계성을 언급한 연구는 없다.

전통축제의 변용과 새로운 축제의 생성에 대한 논의에서 도시특성(도시성격)과 축제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에는 이덕구(2011)가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축제인 아오모리의 네부타축제(靑森ねぶた祭り)와 신생축제인 히로사키의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 축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도시성격이 전통축제의 변용과 새로운 축제의 생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였지만, 본고는 동일한 성격의 전통축제를 두고, 두 도시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변용이 상이한 형태(전통의 유지계승 혹은 관광상품화)로 나타남을 설명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⁴⁾

이러한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사라져간 전통축제의 부활에 관심과 시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의 변용이 도시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연구로서 축제의 부활 및 상품화의 시도에 도시의 성격이 반영되어 보다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아오모리현(靑森県)의 네부타와 그 기원

진술하였듯이 아오모리현(靑森県) 일대의 여름축제인 네부타(ねぶた)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서부 쓰가루(津軽)와 동부 시모키타(下北)지역을 중심으로 편제

4) 일본의 축제 연구는, 주로 일본 민속학자들에 의해 신사(神事)나 불사(仏事) 그리고 전통적인 제례를 대상으로 축제의 종교적 의미나 예능의 전통적 성격의 측면이나, 혹은 축제의 발생과 형태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상징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1960년대 들어 소노다(蘭田 1967)의 연구에서 축제에 지역사회 개념이 도입된 이후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분야에서 신사축제가 아닌 도시축제가 실증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축제의 관광화에 따른 변화실태와 사회적 의미, 기능, 성격 변화 등을 논한 연구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의 제집단간 대립과 갈등을 논한 연구, 참여자의 형태와 의식의 변화를 논한 연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와자키(和崎 1988)와 요네야마(米山 1974, 1979)는 도시의 축제가 지역사회의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연구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보고 축제를 사회의 시대적 변동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되어 산재하는데 시모키타(下北)지역의 네부타⁵⁾는 주로 농어촌지역의 규모가 작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쓰가루(津輕)지역의 네부타는 규모가 크고 관광객을 의식한 대규모 행사로 변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오모리시(青森市)의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히로사키네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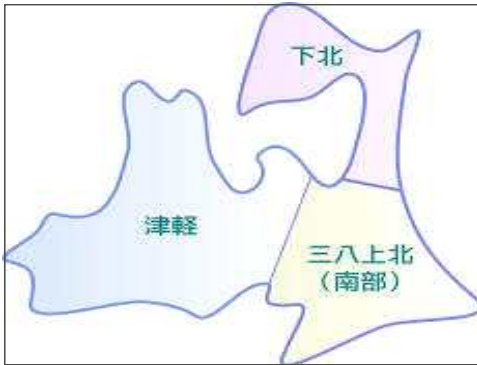


그림1) 아오모리현의 네부타 분포권

(弘前ねぶた祭り)를 들 수 있다.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는 가부키(歌舞伎)나 역사(歴史) 혹은 신화(神話) 속의 무사(武士)나 인물을 표현한 입체형 네부타, 음악(하야시)⁶⁾, 사람(하네토)⁷⁾이 축제행렬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등롱(네부타)을 수레에 싣고 행렬하며, 하야시(囃子)가 선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970년대부터는 30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는 일본을 대표하

는 여름축제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으며, 수레(가마)에는 전구, 형광등, 충전기, 발전기, 트럭의 타이어, 차축 등을 이용하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새롭게 진화해 ‘변용의 선구자’(森田 2000:254)로 불릴 정도로 관광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축제이다. 히로사키네부타(弘前ねぶた祭り)는 삼국지(三国志)나 수호전(水滸伝) 등에 출현하는 무사(武士)들의 그림을 부채의 정면과 배면에 그려 넣은 부채형태의 네부타 80여대를 운행하는 행렬로서 아오모리네부타에 비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계승되어 오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쿠로이시시(黒石市)와 고쇼가와라시(五所川原市) 등지에서도 네부타의 행렬을 볼 수 있다.⁸⁾

5) むつ市の川内町, 大畑町, 脇野沢村, 佐井村등지에서 연행되고 있다.

6) 하야시(囃子, 음악 혹은 그 악기)는 네부타행렬에 동반하는 피리(笛), 북(太鼓)등으로 꾸며진 웅장한 음악대로서 주로 지역주민들이 역할을 담당한다. 이 하야시에 따라 하네토라 불리는 오도리코(踊子)가 춤을 춘다.

7) 하야시(囃子, 반주)나 가케고에(掛け声, 구령)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로서 하네토라 한다. 하네토의 춤추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단순히 폴짝 폴짝 뛰는(하네루:跳ねる)것이다. 단지 뛰어오르는 것이 전부이기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주최 측은 의도적으로 하네토로의 참가를 유도하였기에 축제가 본격적으로 관광화 된 196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축제의 꽃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이덕구 2010, 295쪽).

8) 구로이시의 네부타(黒石ねぶた祭り)는 아오모리네부타 보다 작은 크기의 부채네부타와 인형네부타가 주류를 이루며 약 60대정도가 운행하며, 구령은 “야 - 레 야 - 레 야 -” 이다. 고쇼가와라의 네부타(五所川原立佞武多祭り)는 네부타를 한자로 표기 하고 있으며 높이 20미터를 넘는 네부타가 운행되어 타치네부타(立ねぶた, 선네부타)로 불린다.

네부타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바쁜 여름 농사에 방해가 되는 졸음이나 게으름 등을 쫓는 네무리나가시(眠り流し)라는 칠석행사의 하나로 신사(神社)나 사찰(寺刹)과 결부되지 않은 행사로서 그 기원을 농촌 등지에서 연행되고 있던 민속행사에서 구하고자 하는 ‘촌락행사 원류설’과, 네부타는 기록에 남아있는 초기부터 ‘도시(町場)축제’이었기에 그 원류를 도시의 축제에서 구하는 ‘도시제례원류설’⁹⁾이 있다.¹⁰⁾

야나기다(柳田1990, 457쪽)로 시작되는 ‘촌락행사 원류설’은 ‘네부타’를 농촌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던 ‘칠석제’나, 작업을 방해하는 ‘졸음(眠気)’을 쫓아 흘려보내는 행사에서 그 기원을 구하는 설명이다. 네부타의 어원도 이 네무리나가시(ねむたながし)에서 네무타(ねむた) > 네부타(ねぶた) 혹은 네푸타(ねぶた)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아오모리네부타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코마쓰(小松 2000, 2-3쪽)에 따르면 “아오모리시에서 현재 연행되고 있는 ‘네부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아오모리의 개항 이전까지일 것이다. 아오모리라는 도시의 성립으로부터 고찰해봐야 한다. 따라서 아오모리네부타는 아오모리개항 이후 이 지역에 이주해온 상공인(商工人)들의 후손이 자신들의 제례로서, 즉 완성된 도시의 심벌로서 연행해온 것이다. 아오모리네부타가 시작된 배경으로는, 히로사키 주변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아오모리주변의 예로부터 있어온 농촌의 칠석행사가 모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시의 성립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9) ‘도시제례원류설’은, 히로사키나 아오모리의 주민이 다른 도시(町場)에서 연행되고 있던 도시제례화한 칠석제를 거의 그대로 흉내 내는 형태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코마쓰(小松 2000b:10)는 네부타가 촌락축제로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네부타의 원류는 도시축제에서 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도시에서 대등롱을 볼거리로 만들었다가 축제로 정착되었다는 설이 제시된다. 쓰가루번(津軽藩)의 시조(始祖) 이신(為信)의 ‘대등롱’의 고사(故事)는, 1593년 쓰가루영주(津軽藩祖)가 교토(京都)에 머물고 있을 때, 7월의 보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토(京都)이기에 이때 각자의 고향을 자랑할 대형 등롱을 만들어 교토(京都)의 거리를 선회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쓰가루편람일기(津軽偏覽日記)”에 남아있어 많은 사람이 이를 네부타의 기원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코마쓰(小松 2000c:63-64쪽)가 이 기록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이 일기는 ‘등롱 대형화의 유래’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점’만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축제인지 또는 축제가 이때에 시작되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이덕구 2014, 319쪽 참조,재인용).

10) 이 밖에도 타무라마로전설(田村麻呂伝説)이 기원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는 사카노우에타무로(坂上田村麻呂)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으로 에조(蝦夷) 정벌을 위해 진군할 때 산속에 숨어버린 적군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축제를 벌인 것이 네부타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로서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홍보 팸플릿에는 이 타무라마로전설(田村麻呂伝説)이 네부타의 기원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주해 오고, 또 사람과 물건이 왕래한 것으로 보아, 아오모리네부타의 구석구석에 히로사키의 네푸타 등과는 다른 독자의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아오모리의 네부타(ねぶた)는 히로사키의 네푸타(ねぷた)보다 역사가 짧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오모리현 도시성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원조 네부타는 히로사키의 네푸타(ねぷた)로 볼 수 있는데 전후(戰後) 축제(지역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 계획에 매진한 아오모리의 네부타가 전국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어 오늘날 네부타(ねぶた)라 함은 아오모리의 네부타를 연상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3.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히로사키네푸타(弘前ねぷた祭り)의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오모리현(青森県) 일대에서 행해지는 네부타(축제)는, 현(県)의 남부지역을 제외한 쓰가루(津軽)와 시모기타(下北)지역에 편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아오모리의 ‘네부타(ねぶた)’와 히로사키의 ‘네푸타(ねぷた)’를 비교해 보자.



사진1)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 사진2) 히로사키네푸타(弘前ねぷた)

먼저 네부타 본체의 형태면에 있어서 아오모리의 네부타는 대형(높이 5미터, 가로 9미터, 세로 8미터로 제한)으로 현내(県内)의 어느 지역 네부타보다 크고, 제재(題材)로는 가부키(歌舞伎)나 역사(歴史) 혹은 신화(神話) 속의 인물이나

무사(武士)를 표현한 입체형 네부타인데 반해 히로사키의 네푸타는 크기에 제한은 없지만 비교적 작은 부채형태의 구조물에 삼국지(三国志)나 수호전(水滸伝) 등에 출현하는 무사들의 그림을 정면과 배면에 그림으로 그려 넣은 부채형의 네부타라는 점이 외형상의 큰 차이점이다. 그 제작에 있어서는 아오모리 네부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나 상점, 공공기관이 스폰서가 되어 네부타사(ねぶた師)¹¹⁾라 불리는 전문가의 손에 의해 전적으로 제작되고 운행되는데 반해 히로사키의 네푸타는 일부는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나이카이(町内会)등의 지연조직이 주류가 되어 제작하고 이들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네부타 본체의 종류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대형네부타를 비롯하여 어린이네부타(子供ねぶた), 금붕어네부타(金魚ねぶた), 마에네부타(前ねぶた) 등의 다양한 네부타가 운행되는데, 어린이네부타는 지역의 초등학교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소형네부타를 말하고, 금붕어네부타는 축제기간 중에 역이나 상점의 처마에 혹은 일반 가정에서도 줄지어 걸며 장식하는 금붕어 모양을 한 인형을 말하며, ‘네부타’의 상징성을 가진다. 금붕어네부타는 히로사키나 아오모리뿐만이 아니라 츠가루(津軽)전역에 전승되어 온 민속으로 언제 네부타축제에 도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¹²⁾ 마에네부타(前ねぶた)는 아오모리네부타에서만 볼 수 있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네부타를 말하는데 광고네부타로 불리기도 한다. 관광상품화 되기 이전에는 대형네부타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선도(先導)네부타로서 그 작풍에 있어서 대형네부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대형네부타를 운행하는 단체(기업, 상점, 관공서 등)가 자기PR용으로 제작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작단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후술 하겠지만 히로사키의 네푸타에는 없는 이러한 마에네부타(광고네부타)에서 네부타와 네푸타의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아오모리네부타의 행렬에는 하야시와 하네토, 바게토¹³⁾ 등이 함께하며 하야

11) 메이지 시대 무렵까지는 네부타가 조나이 단위로 운행이기 때문에 조나이의 유지가 주로 제작을 담당했지만 전후(戰後) 네부타를 기업 등이 운행하게 되자 점차 이름 있는 제작자가 주문을 받게 되었고, 제작비가 고액화 됨에 따라 지역민은 제작비를 감당 할 수 없게 되어 제작으로부터 멀어졌다. 2014년 현재 아오모리의 전문 네부타사(ねぶた師)는 15명으로 각각 작풍이 다르다고 한다.

12) 미카미(三上)는 “예로부터 츠가루 지방에 사육되어 오던 금붕어는 ‘地金魚’로 불리어졌으며, 이것이 1927년에 히로사키금붕어협회(弘前金魚協會)에 의해 ‘츠가루니시키(津軽錦)’로 명명되었다. 츠가루니시키(津軽錦)는 장기간에 걸쳐 번(藩)의 보호아래 사육, 개량을 거듭한 끝에 탄생한 품종이다. 금붕어가 주민들에게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것이 등롱과 네부타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있다(三上 2000, 205-209쪽 참조).

13) 바게토는 축제에 가장(仮装)하여 참가하는 사람들로써 우스꽝스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네토와는 달리 네부타의 최전방에서 행렬의 길잡이(露払い)역할을 담당하며, 다이쇼(大正) 초기까지의 아오모리네부타에서는 하네토보다 바게토가 많았다고 전해지지만, 축제가 관광화하면서

시의 약기는 피리가 중심이 되고 큰북을 비롯한 여러 약기가 보조하면서 경쾌하면서도 동시에 웅장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네부타 앞에서 춤추는 무리인 하네토의 존재에 의해 매우 역동적이다. 반면 히로사키네부타의 행렬은 아오모리에 있는 하네토가 없어 역동성은 떨어지고 하야시의 음률은 큰북이 중심이 되고 피리를 비롯한 여러 약기가 보조하면서 시종 애잔한 서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표1)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네푸타(弘前ねぶた祭り)

구분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	네푸타(弘前ねぶた祭り)	
개최지	青森県 青森市	青森県 弘前市	
개최일	매년 8월2일~7일	매년 8월1일~7일	
관객동원 수 ¹⁴⁾	150만명	300만명	
네부타	형태	정방형(입체)	부채형(그림)
	작품 (題材)	가부키(歌舞伎)나 역사(神話) 속의 무사	삼국지(三国志)나 수호전(水滸伝)의 무사
	제작	전문가(ねぶた師)	지역민 및 전문가(일부)
	종류	대형, 소형(어린이, 금붕어, 마에네부타)이 있음	마에네부타가 없음
	운영	기업,상점,관공서 등이 주체	지역민이 주체
행렬	하야시, 하네토, 마게토가 동반	하네토와 마게토 없음	
구령	랏세라~, 랏세라~	야~야도, 야~야도	
하야시	피리중심의 경쾌함과 웅장함	큰북중심의 애잔함	
분위기	역동적	서정적	
특징	변용의 선구자 관광상품화에 주력	원조의식 전통유지(원형고수)	

하네토의 증가와는 반대로 수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이덕구 2010, 295쪽).

14) 지역신문사(東奥日報)의 집계발표에 그대로 따름

그러나 두 축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특징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아오모리네부타(靑森ねぶた祭り)는, 전후(戰後)에 관광상품화를 의식하여 새로운 주최조직¹⁵⁾을 탄생시켜 축제의 프로그램 및 운행방식 네부타의 크기 및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여 변용의 선구자라 불릴 만큼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대 이벤트로 변화를 유도한 반면 히로사키시의 네푸타(弘前ねぶた祭り)는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이 강해 오늘날까지 전통형태의 원형을 고수하려는 담론이 강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나이카이(町内会) 등의 지연조직이 네푸타의 제작 및 운행(축제)조직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이나 관공서는 극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다(阿南 2003, 265쪽)는 점이다.

4. 네부타(ねぶた)와 네푸타(ねぶた)의 전통과 변용

아오모리네부타는 전후(前後)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변용된다.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네부타의 운행과 함께 연행되던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민요대회나 연예, 무용,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잡다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네부타만을 운행하는 전문화된 축제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경쟁구도를 확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부타의 크기가 커지면서 제한이 폐지되어 초대형네부타가 등장하였고, 네부타의 작풍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상업화가 진행되어 유료관람석을 설치하였고, 더 많은 집객을 위하여 예전에 없던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불꽃놀이, 미스네부타콘테스트)되고 개편(네부타의 해상운행)되기도 하였으며 네부타의 운행코스도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며 축제의 성격은 세속적 측면이 강화된 현대적 이벤트로 변화되었다(이덕구 2011, 294쪽 참조).¹⁶⁾

15) 아오모리 시청 및 상공회의소, 관광협회가 주축이 된 이 새로운 축제조직은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1948년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민요대회나 연예, 무용,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실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주민화합형 행사였다. 그러나 1964년부터는 네부타만을 연행하는 전문화된 관광축제로 변화시켰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일본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요대회나 연예회 같은 잡다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개성을 대변한다는 관광화의 기본여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므로 외부 관광객들에게의 호소력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축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이덕구 2010, 437-438쪽).

16) 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의 성격변화는 참가자의 참가형태와 의식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참가형식이 지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참가형식이 되었으며 조나이를 비롯한 지연(地縁)집단이 네부타 운행의 주력이었던 시기에는, 자신이 소속하는 각 조나이의 네부타 앞에서 오도리를 연행하였지만, 이러한 제한은 없어지고, 어느 네부타든 지역민이나 관광객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오도리꼬(하네토)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지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참가형식이

반면, 히로사키네푸타는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이 강해 변화보다는 전통(원형)을 고수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축제(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를 도입하여 중심시가지활성화에 나섰다.¹⁷⁾

이렇게 같은 성격의 전통축제를 두고 한 도시는 발 빠르게 변용시켜 관광상품화를 시도하고, 또 다른 한 도시는 원형을 고수하여 전통을 지키면서 아예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당면현안(중심시가지공동화)을 해결하려한 차이점은 아오모리시(靑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도시성격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오모리시는 아오모리현청소재지로서 취업인구의 80%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업도시이다. 또한 옛 항구도시라는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근대도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인구비율(2005년 조사)은 제1차 산업 5,724명(4%), 제2차 산업 23,147명(16%), 제3차 산업 111,754명(80%)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계속 감소되는 대신 서비스업(상업·유통업)이 비대해지고 있어, 항만과 상업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일찍부터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오모리시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땅에 근세(1625년, 寬永2年)에 들어 항구가 새롭게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에도말기에는 에조(蝦夷)지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청어와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목재 등의 중계항구로서 크게 번성하였기에 이를 배경으로 타 지역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이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아오모리시민의 성향은, 사람·물건·정보가 집결되는 거점도시이자 교류와 무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구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도시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유행과 사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감각이 뛰어나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이덕구 2011, 292-293쪽 참조)

히로사키시(弘前市)는, 아오모리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라가미산지(白神山地)를 근원으로 하는 굴지의 곡창지대인 광대한 쓰가루(津軽)평야를 바탕으로 주된 산업은 농업이다. 따라서 제 1 차 산업의 취업자비율(2005년 조사)이 17.6%로 전국평균 5.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히로사키의 역사는 17세

되었다. 즉, 네부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식면에서는 전통축제에서는 신앙적 의미나 공동체적 의미가 가장 주도적인 참여의식이고, 그 다음 개인적인 회열이나 만족이 부차적인 의식이었으나 신과 공동체적 의무가 사라진 오늘날의 관광 상품화된 축제에서는 자신의 참여가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식'과 함께 개인적인 회열이나 즐거움이 가장 전면에 부각되었다(아오모리네부타의 변용에 관한 상세는 이덕구 2010, 2011을 참조).

17) 요사코이쓰가루(よさこい津軽)에 관한 상세는 (이덕구 2012)를 참조.

기 초(1603年) 이신(為信)이 쓰가루(津軽)지역을 통일하고, 초대 쓰가루번주(津軽藩主)가 되면서 새로운 성(城)의 건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 영주가 존재하는 조카마치(城下町:성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로서, 쓰가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유신의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 무사계급의 몰락과 함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설치된 현청도 이윽고 아오모리로 옮겨감에 따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아오모리로 넘겨주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히로사키시는 아오모리현은 물론이고 동북지방에 있어서 굴지의 학원도시(교육도시)¹⁸⁾로 지적자원의 풍부함과, 번정기 이후 계승되어 온 역사적 자원(번정시대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원거리, 전통 건축물, 메이지·다이쇼기의 서양식 건축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통고도(伝統古都)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성향은 내륙에 위치한 전통 도시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아오모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덕구 2011, 298쪽).

이와 같이 확연히 다른 두 도시의 성격차이가 비슷한 형태로 전승되어온 지역전통의 네부타를 관광상품화로의 변용(네부타)과 원형고수(네푸타)라는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오모리시(青森市)는 항구도시이면서 상업도시로서의 개방성과 실리주의적 사고가 지역의 전통(네부타)을 보다 쉽게 상업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광상품화 하였고, 히로사키시는 유서 깊은 전통도시이면서 교육도시로서의 보수성과 네부타의 원조지라는 의식으로 인하여 전통의 네부타를 네푸타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담론¹⁹⁾이 우세하여 대신 시가지공동화라는 지역의 현안에 아예 타 지역의 새로운 축제들²⁰⁾을 도입하여 대처하였던 것이다.²¹⁾

18)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이 1개교, 사립대학이 2개교, 사립단기대학(2년제 대학)이 2개교, 방송대학이 1개교, 전수학교(2년제 전문학교)가 8개교가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 수가 약 11,000명에 이른다.

19) 아오모리처럼 볼거리 위주로 변용해야한다는 주장과 긴 안목으로 보아 원형을 유지하는 쪽이 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여 대립하고 있다.

20) 히로사키시의 중심시가지 도테마치(土手町)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나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의 진전, 자동차보급을 배경으로 일상생활권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교외의 개발, 특히 1994년 '대점법(大店法)' 완화개정 이후, 교외에 대형유통업체가 집적하고,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교외입지 등의 요인으로 활기를 잃어가자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어 거리를 즐기는 장치로서의 구체적인 이벤트가 6월에는 요사코이 쓰가루축제(よさこい津軽まつり), 7월에는 모모이시납량야시장축제(百石町納涼夜店まつり), 8월에는 역전여름축제(駅前夏まつり), 9월에는 도테마치컬쳐로드(土手町通)カルチャアロード)등을 속속 탄생시켰다(이덕구 2011참조).

21) 현지조사에서 히로사키사람들은 아오모리의 네부타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근본 없는 네부타라 하고 있었다.



사진3) 스타워즈네부타



사진4)러브라이브네부타

2015년의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에서는 ‘스타워즈네부타(スターウォーズ ねぶた)’가 등장하여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스타워즈네부타(スターウォーズ ねぶた)’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두 도시의 성격차이를 단편적으로 엿 볼 수 있다.

아오모리시와 월트·디즈니·재팬(도쿄)은 6일 올해 8월의 아오모리 네부타축에 인기SF영화 스타워즈를 소재로 한 소형 네부타 4대가 처음 등장한다고 발표했다. 다스 베이더와 R2—D2, 요—다 같은 캐릭터가 아오모리의 여름밤을 장식한다. 영화의 최신작이 12월에 공개되는 것에 맞추어 전통 문화의 네부타와 융합시키고 해외에 발신하는 목적이다. 시 관광과의 모모만(百田満)과장은 “해외에 아오모리네부타를 알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담았다(北海道新聞 2015年07月07日).

그러나 스타워즈네부타는 정식 축제기간(8월2일~8월7일)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전야제(8월1일)에서만 시연을 한 후 전시에 그치게 되었는데, 아오모리네부타실행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운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 및 관광객 사이에서 찬반의 논란이 일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지방판 기사를 참고해 보자.

동북의 여름을 장식하는 아오모리 네부타축제가 2일 아오모리시(青森市)에서 개막한다. 올해는 영화“스타워즈”를 다룬 네부타의 첫 등장에 관심이 쏠리지만 축제 실전에서는 운행되지 않고 전시만 하게 되었다. ‘전통에 맞지 않다’며 지역이 난색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는 “아오모리를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라는 아쉬워하는 소리도 나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실행위원회에서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서의 전통과 무엇보다 팬들의 쇄도에 따른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결국 전야제에서의 발표와 축제 기간 중 전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실행위의 나라(奈良秀則)위원장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대전제, 저것은 네부타가 아니다!” 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또 다른 축제 관계자는 스타워즈네부타의 운행에 ‘하네토’라 불리는 오도리코 희망자들이 너무 많아 연도(沿道)의 관객이 급증하면 혼잡 경비의 과다지출과 안전사고를 더 우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본선에서 운행되는 네부타는 무사 등이 소재이지만, 이미 선도 기업 마스코트와 인기 캐릭터를 본뜬 등롱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아오모리네부타 축제이다. 연내에 신작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타워즈네부타의 제작관계자는 “왜 운행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경제 효과도 예상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었다.”라며 아쉬워했다.

전통과 PR와의 마찰로 인하여 화제의 네부타가 출진하지 못하게 된 결론에 시민들은 불만도 높았다. 아오모리시의 시라카와노보루(白川登)씨(68)는 “외국인과 아이들에게는 무사보다 스타워즈가 더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毎日新聞 2015年08月01日 地方版).

이러한 기사 등을 참고해 보면 아오모리시(青森市)는 스타워즈네부타를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불허에는 전통을 운운하지만 명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보다 안전대책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 후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의 공식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광장에서도 스타워즈네부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교차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본고와 같은 맥락을 확인 할 수 있었다.

GRIg+jfe0의 ID는 “드레곤 볼의 네부타는 좋고 스타워즈네부타는 안 되는구나...호-음...(ドラゴンボールのねぶたはよくてスターウォーズのねぶたはダメなんだ...ふん...)”라 했고, チャペコの ID는 “왜 스타워즈는 안 되고 러브라이브²²⁾는 괜찮은 것일까?(なんでスターウォーズはダメでラブライブは良いのかな~)”라 했으며, 0k/UDMt20의 ID는 “그 문턱 높은 히로사키네푸타라면 모르겠지만, 아오모리라면 해도 좋지 않을까?(あの敷居の高い弘前ねぶたならわかんねえけど青森じゃやってもよ!!) 라고 했다.

22) 러브라이브네부타란 도쿄 지요다 구에 있는 한 여고를 배경으로, 시대의 흐름에는 어찌지 못하고 3년 후 학교 통폐합 위기에 처한 가운데 9명의 학생이 일어서 스스로 아이돌로서 활동하며 학교의 이름을 알려 입학 희망자를 늘려나간다는 스토리의 만화 속의 캐릭터를 제재(題材)로 한 네부타를 말한다. 러브라이브는 TV 영화로도 방영되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 무척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다이산은행(第三銀行)에 근무하는 사쿠타(作田雅彦)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남긴 의견에서도 히로사키와 아오모리의 네부타에 관한 의식차이를 엿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올해 삿바로 눈 축제의 최대 인기는 스타워즈의 대 설상(大雪像)이었습니다. 엄청난 박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히로사키라면 몰라도 아오모리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そういえば、今年のさっぽろ雪祭りの最大の呼び物は、スターウォーズの大雪像でした。ものすごく迫力があつたのを覚えています。弘前ならともかく青森では、もう少し柔軟に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이틀 후(8월3일) 가호쿠신보(河北新報)에 왜 스타워즈는 안 되고 러브라이브는 되었는가에 대한 해명기사가 났다.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네부타’는 마에네부타(前ねぶた)라 불리는 타입의 것으로 메인의 대형네부타를 선도하는 소형(대형의 5내지 10분의 1정도 크기)으로 이 마에네부타는 기업이나 스폰서 광고에 사용되는 것이 많고, 크기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한다. ‘스타워즈네부타’는 아오모리네부타의 최대 크기(가로 9m, 높이5m, 세로 8m)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인데다 그것이4대나 있어 ‘마에네부타(前ねぶた)로서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河北新報 2015年 08月03日).

결국 2015년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에서 ‘스타워즈네부타(スターウォーズねぶた)’의 해프닝은 전통의 훼손보다 크기와 안전의 문제였던 것으로 귀착된다.

5. 결론

아오모리현(青森県) 일대의 크고 작은 도시(마을)에서 예로부터 전해내려 오던 네부타란 민속행사는 각기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가운데,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네부타는 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네부타이다. 도시형성의 역사로 볼 때 히로사키의 네부타가 원조네부타로, 아오모리의 네부타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으나 히로사키의 네부타 혹은 또 다른 지역의 네부타를 흉내 내거나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서로 비슷한 형태의 전통 민속행사를 두고, 히로사키시(弘前市)는 네부타를 지역의 방언 그대로 ‘네푸타(Neputa)’로 등록하고 원형을 고수(전통유

지)하는 전략으로 지역현안(지역활성화)에 대처하고 있으며, 아오모리시(青森市)는 일찍부터 관광객이 부르기 쉬운 이름의 ‘네부타(Nebuta)로 등록하고, 그 크기를 대형화하는 등 볼거리위주로 관광상품화하면서 상업적으로 재조직하는 등, 두 도시는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히로사키시(弘前市)에는 네부타 원조의식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전통도시이자 교육도시라는 보수성이 결부되어있으며, 아오모리시(青森市)에는 항구도시이면서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상업도시의 개방적이고 실리주의적 성향이 바탕에 깔려있음이 2015년 ‘스타워즈네부타(スターウォーズねぶた)’의 해프닝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축제의 관광상품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역도시들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담론으로 존재하고,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사라져간 전통축제의 부활에 관심과 시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축제가 구체적으로 관광 상품화하거나 부활하는 과정은 각 도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축제의 변용이 도시성격에 따라 다른 유형(관광 상품화, 전통유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례로서의 의미와 전통의 유지(원형보존)가 또 다른 의미의 관광상품화 수단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고 확인 해 볼 수 있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参考文献】

- 이덕구(2010) 「일본 지역전통축제의 관광화와 시사점」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9-448
- _____ (2011) 「도시특성과 축제」 『일본문화학보』 제4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7-307
- _____ (2012) 「현대 도시축제의 참여의식에 대한 일고찰」 『일본문화학보』 제5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39-260
- _____ (2014) 「축제와 지역사회」 『일본문화학보』 제6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7-307
- 阿南 透(1997) 「伝統的祭りの変貌と新たな祭りの創造」 小松和彦編 『現代の世相⑤祭りイベント』 小学館 pp.68-110
- _____ (2000a) 「青森ねぶたの現代」 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ぶた誌』 青森市 252-277

- _____ (2000b) 「青森ねぶたとカラスハネト」 日本生活學會編 『祝祭の100年』 ド
メス出版 173-198
- _____ (2000c) 「各地に広がるねぶた」 日本生活學會編 『祝祭の100年』 ドメス出版 278-295
- _____ (2003) 「青森ねぶたの現代的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pp.263-299
- 小松和彦(2000) 「都市祭りとしての青森ねぶた」 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
ぶた誌』 青森市 9-18
- 藺田 稔(1967) 「祭り参加の諸相と階層」 九学会連合 編 『人類科学19』 27-57
- 三上強二(2000) 「金魚ねぶた」 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ぶた誌』 青森市 205-209
- 三井 泉(2006) 「地域文化と企業の関わりに関する経営人類学的考察-青森ねぶた祭りの事
例を中心として」 『商学論集』 75巻1号 5-18
- 森田三郎(2000) 「祭りの創造-よさこいネットワークを考える」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
年』 ドメス出版, pp.237-260
- 柳田国男(1990) 「日本の祭」 『柳田国男全集13』 弘文堂書房
- 米山俊直(1974) 『祇園祭-都市人類学ことはじめ』 中央公論社
- _____ (1979) 『天神祭-大阪の祭礼』 中央公論社
- 和崎春日(1988) 「都市祭礼における異化と同化：都市祭礼研究の方法論をめぐって」 吉田
禎吾, 宮家準 編著 『コスモスと社会：宗教人類学の諸相』 東京, 慶応通信69-90

인터넷자료

- <http://daily.2ch.net/test/read.cgi/newsplus/1438424764/150>
- http://www.huffingtonpost.jp/2015/08/02/star-wars-nebuta_n_7922898.html
- <http://www.pref.aomori.lg.jp/bunshin/jigyou/vision/mokuzi.html>
- <http://www.city.aomori.aomori.jp/totalproject/index.html>
- http://www.jcp.or.jp/faq_box/001/2000729_faq_daitenhou.html
-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lan/pdf/jigyo020.pdf>
-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ro/proc01.html>
- <http://www.nebuta.co.jp/shouwa/rekisi/top.htm>
- 河北新報 <http://headlines.yahoo.co.jp/list/?m=khks>
- 毎日新聞 <http://mainichi.jp/area/aomori/news/20150801ddl02040097000c.html>
- 北海道新聞 <http://dd.hokkaido-np.co.jp/>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게재확정일 : 2015.10. 3